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4. 12. 9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2/2~12/6)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프랑스 정국 혼란으로 인한 유로화 약세와 트럼프의 브릭스 국가 대상 관세 위협 발언 등에 강달러 나타나면서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예상을 웃돈 미 제조업 지표와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달러 강세 이어지자 추가 상승
- 중반, 갑작스런 대내 정치 리스크에 전일 야간 거래에서 1,440원대로 급등했으나 당국의 강한 시장안정 의지에 1,410원대에서 상단 제한
- 후반, 금리인하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파월 의장 발언과 대내 정국 불안에 추가 상승. 이어 주 후반, 당국 개입 경계감에도 국내 정치 리스크 장기화 우려에 원화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1410원 후반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11월 고용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실업률이 4.2%로 상승한 측면이 연준의 12월 금리인하 기대를 유지시킨 측면 등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하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외신인도 저하에 따라 원화 절하 압력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은 계속되겠지만 그 흐름을 되돌림 시키기보다 속도를 늦추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96.0	1,429.2	1,396.0	1,419.2	+23.2

예상거래범위

1,420원 ~ 1,440원



엔·유로화 동향 (12/2~12/6)



유로화 동향

- 주초, 프랑스 정부와 야당 간 예산안 처리 갈등이 고조되며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프랑스 야당의 정부 불신임 투표 요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1.05달러선에서 횡보세
- 중반,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의 하원 통과에도 선반영된 영향에 추가 약세 폭은 제한됨
- 후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가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유로화가 반등. 이어 주 후반, 독일 성장률 부진 등 유로존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 속 약세 전환 후 1.05달러대에서 마감

엔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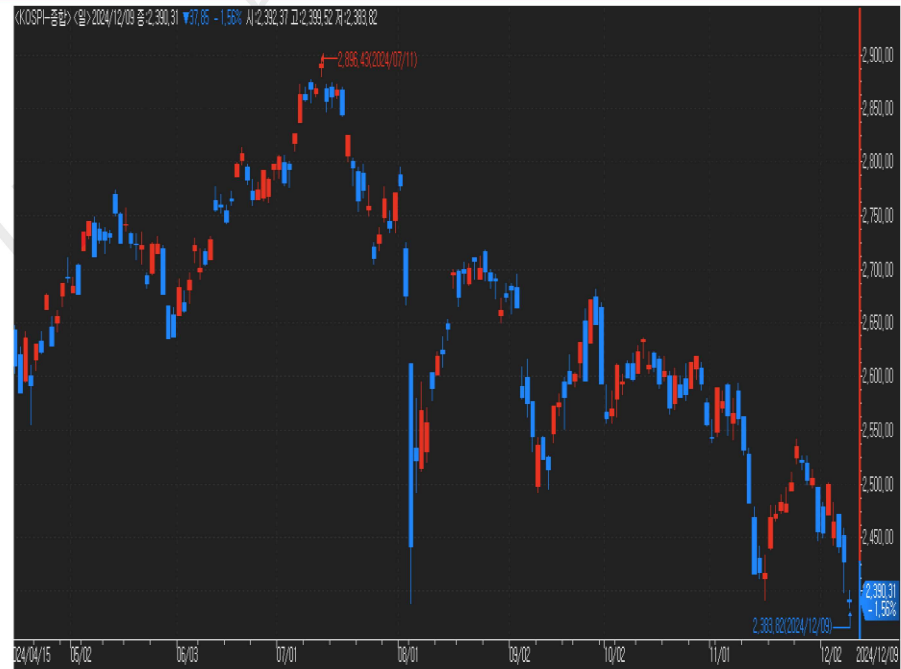
- 주초,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에다 BOJ 총재의 발언에 엔화는 강세 출발. 이어, 한국 정국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산되며 추가 강세를 시현
- 중반, 프랑스 연정 붕괴 소식에도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인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약세 전환
- 후반, 비둘기파 성향의 BOJ 정책위원이 금리인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약세의 되돌림 시현. 이어 주 후반, 미 고용 호조에 실업률 상승에 따른 연준 12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미 국채금리 하락세를 반영하며 149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583	1.0629	1.0461	1.0564	-0.0019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9.6	151.2	148.6	149.9	+0.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2~12/6)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지난주 한은 금리인하 결정 이후, 우호적 수급과 향후 경기전망 불확실성 등에 의한 한은의 추가 비둘기적 기대감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5% 상승 속 시장 예상 부합한 가운데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어진 내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대한 공급 부담 우려 등으로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밤사이 정국 불안 충격이 해제된 이후 탄핵안 제출 후 국고채 매도가 확대되며 금리 상승 흐름 지속된 양상
- 후반 들어, 계엄 해제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정치리스크가 다소 일단락되는 양상에서 국고채 시장은 정부의 필요시 국고채 단순 매입,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 발표 등의 영향으로 금리 하락 전환 후, 주 후반, 미국 11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대기 하며 제한된 흐름 나타내던 국고채 시장은 정치권의 2차 계엄 가능성 거론 등이 야기되며 변동성 확대 속에 상승 흐름 보이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국내 수출 증가폭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심리 약화 지속 등으로 코스피는 하락 출발. 이어 미 ISM의 PMI지표가 48.4로 기준선은 하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이 국내 수출 측면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 등으로 상승하며 2,500선 회복
- 중반 들어, 국정 불안 충격에 따라 외국인들의 대내 신인도가 저하된 영향 등으로 코스피는 2,400대로 하락 전환한 국면 시현
- 후반 들어, 국내 정국의 탄핵 국면 진입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외국인 매도세 강화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까지 더해지며 주가의 하방 압력 확대 속 하락 추세 지속 후, 주 후반, 정치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대통령 탄핵 정국 위기 우려감 등으로 개인 자금 이탈 심화 속에 2,400대 초반까지 하락하며 마감